

中·日の 經濟思想과 理論*

李 亨 純**

<目 次>

- I. 問題提起
- II. 日本의 成功을 가져온 經濟論理는 무엇인가
- III. 왜 中國은 開港 당시에 失敗했는가
- IV. 日本의 經濟思想은 어떠한 것인가
- V. 왜 中國은 지금 成長하는가
- VI. 儒敎文化圈의 可能性에 대하여

I. 問題提起

1853년 페리 提督이 조용한 아세아의 바다를 뒤흔들어 놓은 지 5년 후 1858년 日本은 「安政條約」을, 中國은 같은 해에 「天津條約」을 각각 맺고 開港하게 되었고 資本主義의 世界市場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다.

日本은 개항한 지 10년 후에 明治維新(1866년)이 일어나 歐美의 政治制度, 經濟制度 그리고 敎育制度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1880년대 중반에 와서는 쿠즈네츠(S. Kuznets)가 말하는 이른바 「近代經濟成長」(modern economic growth)의 初期局面을 맞아⁽¹⁾ 經濟의 近代化의 터전을 완성시키게 되지만 왜 中國은 그 당시 失敗하였는가.

현재 日本은 經濟大國으로써의 與件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1985년 日本은 世界의 最大債權國으로 등장했고 미국은 最大債務國으로 전락했다. 英國이 세계경제를 제패했던 1890년경에 GNP에 차지하는 經常收支 黑字幅은 3.8%였고 미국이 「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 시대의 全盛期였던 1947년에 역시 GNP에 차지하는 경상수지 흑자폭은 3.7%였다. 현재 日本의 그것은 3.6%에 달하고 있다.

* 中國의 儒敎, 毛澤東과 文化大革命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高麗大學校 哲學科 劉權鐘 敎授의 도움을 받았다. 물론 本稿에 수록된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전적으로 筆者의 책임에 속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 高麗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1) 大川一司·H. Rosovsky 共著, 『日本の經濟成長—20世紀における趨勢加速』, 東洋經濟新報社, 1973年,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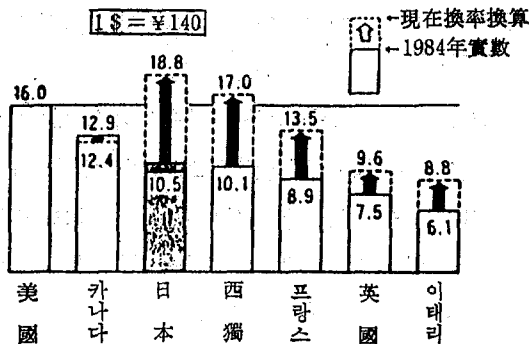
현재 일본은 1인당 GNP 수준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韓國 産業研究院이 예측한 결과를 보면 1987년에 일본의 1인당 GDP 수준과 미국의 그것은 같아질 것으로 보았고, 西紀 2000년에 가면 두 나라의 GDP 규모는 같아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1995년의 미국의 對外總債務額은 1조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았고, 일본의 그것은 8천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²⁾

1985년 9월 22일 先進 5個國의 財務部長官들이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 모여 換率의 조정 문제에 합의했는데 이른바 「프라자 合意」 직전의 달러와 圓의 換率은 1달러 對 242圓이었는데 현재 1달러 對 140圓으로 圓貨의 平價切上이 이루어졌다. 이 기준으로 1984년의 일본의 1인당 GNP는 <그림 1>에서 보듯이 1만 8천 8백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³⁾

1953년 10월 毛澤東은 中華人民共和國의 成立과 社會主義的 改造의 基本方針을 公示했고 第1次 5個年計劃(1953년~57년)이 시작됐지만 1955년 李富春 國家計劃委 主任은 社會主義的 改造를 위한 過渡期의 의무를 완성시키는데 15년이 필요하다고 보고 3차에 걸친 5個年計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련의 스탈린·레닌方式의 重工業爲主의 開發戰略을 택했지만 이러한 計劃方式은 失敗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후 中國은 격심한 文化大革命을 겪게 되지만 오늘의 鄧小平下의 中國은 스탈린·레닌 方式에서 탈피하여 四大 現代化 目標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對外開放政策을 추진한 결과 지금 中國은 성장하기 시작했다. 1976년에서 85년에 걸쳐 實質成長率은 7.7%의 高度成長을

單位：1,000달러 1984年 基準



日本(1\$ = 140¥) 이의는 86年末 換率換算

資料：國連資料

<그림 1> 主要國 1인당 GNP 比較

(2) 韓國産業研究院 編, 『向後 美·日 經濟關係의 展望과 우리의 對應』, 1987年 5月.

(3) 大前研一 著, 『日本經濟に斬りこす』, 文藝春秋, 1987年, p. 129.

기록했고, 향후 10년간에 걸쳐 年平均 7%의 實質成長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⁴⁾

지금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에서는 第13期 1次 全體會議(一中全會)가 열려 鄧小平의 改革派가 득세하여 近代化의 方向設定은 그 자리를 굳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黨總書記로 뽑힌 趙紫陽은 앞으로 중국이 近代化를 완성시키는데 1백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

오늘날 日本은 어떻게 하여 經濟大國으로 성공하였는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中國은 어떻게 하여 성장하기 시작하였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經濟學的 측면에서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고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도 매우 의의있는 일이지만 같은 儒敎文化圈에 속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의 方向設定을 위해서는 매우 緊要한 과제라고 하겠다.

本稿의 목적은 두 나라에 관한 필자의 制限된 지식을 가지고 두 나라의 發展戰略에 깔려 있는 經濟思想이나 經濟論理를 比較檢討하는 동시에 世界經濟에 있어서 儒敎文化圈에 속하는 나라들에 관한 앞으로의 經濟動向分析을 試圖하려는 데 있다.

II. 日本의 成功을 가져온 經濟論理는 무엇인가

오늘날 日本이 經濟大國으로 부상하게 된 까닭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첫째로는 歐美를 따라 잡겠다는 結束, 둘째로는 日本人의 勤勉精神, 셋째로는 資源이 없는 섬나라라는 세 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⁵⁾

1. 近代化의 初期局面과 均衡成長

특히 開港 당시에 日本은 近代化의 터전을 닦을 수가 있었고, 왜 中國은 실패했는가를 비교·검토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日本의 近代化의 初期局面을 관찰하는 經濟論理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日本이 쿠즈네츠가 말하는 近代經濟成長의 始動이 걸린 것은 1880년 후반에서 20세기 초엽으로 보고 있다. 그 이진을 明治維新의 過渡期라고 한다.

이 시기에 日本의 經濟構造는 輸入된 歐美의 技術과 組織에 의존하여 비교적 資本集約度가 높은 생산방법을 채택하는 近代部門(modern sector)과 고유의 技術과 組織에 의존하는

(4) 野村總合研究所 編, 『10年後の世界經濟と金融・資本市場—第一部 10年後の世界經濟と日本』, 1985年, p. 110.

(5) 拙稿, 「日本은 어떻게 해서 成功하였는가? : 經濟大國으로 가는 세가지 條件」, 『經濟學研究』, 韓國經濟學會, 제34집, 1986年 12月.

재래식 生産方法을 택하는 在來部門(indigeneous sector)이 있었으며, 近代部門과 在來部門의 중간에 위치하는 混成部門이 있었다. (6) 말하자면 루이스(W.A. Lewis), 레이너스(G. Ranis), 궤에(J.C.H. Fei) 등의 二重經濟모델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경제이었다.

일본은 經濟的 近代化의 過渡期에서 우선 農業政策을 단행했다. 우선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農民에게 유리하게 한 다음에 다시 地稅를 거두어 발전의 剩餘를 國內에서 창출했고 外貨에 의존함이 없이 國內市場爲主의 農·工併進의 補完的 發展(linked progress)을 하면서 國內의 潛在的 成長能力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이른바 녀시(R. Nurkse)流의 均衡成長을 했다. (7)

한편 1876년에서 1881년까지 계속된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드러나자 松方正義 財相이 등장하여 4년만에 걸친 강력한 「松方(마쓰가다) 디플레이션政策」으로 인플레이션을 휘어잡은 후 188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쿠즈네츠가 말하는 「近代經濟成長」이 시작됐다. 그리고 第1次 世界大戰(1914년)이 일어날 때까지 農·工間의 均衡成長을 했다.

大川一司(오오카와 가즈시) 교수와 로소브스키(H. Rosovsky) 교수는 日本의 「近代經濟成長」의 初期局面(1880년대 후반~20세기 초엽)에 대하여 다음의 네 가지 命題를 제시한다. (8)

첫째는 대규모의 資本輸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近代經濟(mdoern economy)를 건설한 이후의 발전은 在來經濟가 加速화된 성장에 의존했으며 混成經濟가 가속화된 성장에도 어느 정도 의존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在來經濟가 이러한 成長加速化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在來經濟의 潛在的 成長能力이 第1次 世界大戰時에 그 한계에 달하자 「近代經濟成長」의 初期局面은 종말을 고했다는 것이다.

넷째는 이렇게 되자 近代部門의 在來經濟에 대한 의존은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현저하게 감퇴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命題가 말해 주는 것은 일본이 經濟的 近代化의 터전을 닦는데 성공한 이유는 農業部門에서 發展의 剩餘를 창출했고 近代部門과 在來部門이 녀시流의 均衡잡힌 「補完的 發展」을 함으로써 外資에 의존함이 없이 國內의 潛在的 成長能力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重化學工業化를 추진하면서 不均衡的 成長을 하게 되지만 1950년대 중반에 오면 이른바 루이스의 「轉換點」(turning point)이 이루어져 (9) 近代部

(6) 拙稿, 「明治維新과 經濟發展」, 『亞細亞研究』,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84年 7月.

(7)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5.

(8) 大川一司·H. Rosovsky 共著, 앞의 책, 1973年, pp.17-23.

(9) 南亮進 著, 『日本經濟の轉換點』, 創文社, 1965年.

門과 在來部門의 生産性隔差(所得隔差)가 해소되기 시작하여 오늘의 經濟大國으로서의 기반이 닦아졌던 것이다.

2. 官民協調體制의 所得政策

일본이 歐美를 따라 잡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官民協調體制의 확립에 있다. 이를 日本型 所得政策(income policy)이라고도 하며, 흔히 「日本株式會社論」 또는 「日本的 經營方式」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明治政府가 歐美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따라 잡기」 위하여 내린 國民的 課題를 富國強兵의 發展目標였고, 이를 뒷받침한 것이 「殖産興業政策」이었다. 이 정책은 明治經濟의 政府主導 아래서 金融, 海運, 鐵道, 郵便, 電信 등의 순서로 이른바 外部經濟를 확립시키고 鑛山業과 같은 것도 民間에 불하하는 형태로 近代産業을 발전시켰다. 明治政府는 “新時代的 意識에 각성한 知識階級(주로 舊下級武士階級)에 의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大規模工場에서의 國營企業의 經營管理도 같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고 한다.⁽¹⁰⁾ 그래서 森嶋通夫(모리시마 미찌오) 교수는 일본은 國家資本主義의 나라로써 출범했다고 본다.

森嶋通夫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文治儒敎國家의 文人官僚制度의 나라였지만 일본의 德山幕府(1603년~1867년)는 武治儒敎國家의 武人官僚政府였다고 한다. 森嶋通夫 교수는 “中國의 官僚는 中國古典을 마스터하고 詩歌·文藝에 능숙한 文人官僚였지만 日本의 武士官僚는 武器, 따라서 科學과 技術에 흥미를 가졌다. 같은 儒敎國家이기는 하지만 中國官僚가 西洋의 科學에 둔감한 반응을 보인 것에 반하여 德川幕府나 明治政府는 科學을 배우는 데 왕성한 의욕을 보였던 것이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일일이 官民協調의 事例를 열거할 수는 없지만 西川俊作(니시가와 순사구) 교수는 殖産興業政策은 開港 당시의 江戸時代부터 시작한 것이며, 民間의 企業人과 政府의 官吏가 서로 協調하여 殖産興業과 富國強兵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관행을 확립시켰고, 10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德川 末期부터의 그 連續性을 강조하고 있다.⁽¹¹⁾

3. 技術導入과 改良工學

일본이 歐美를 따라 잡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歐美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서 이것을 개량해서 보다 生産性이 높은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導入

(10) Michio Morishima, *Why has Japan 'Succeeded'?*, *Western Technology and the Japanese Ethos*, 1982, 李基俊 譯, 『왜 日本은 '成功' 하였는가—日魂洋才—』, 一潮閣, 1982年, pp.9-17.

(11) Shunsaku Nishikawa, Osamu Saito, "Economic History of the Restoration Period Revisited," *UNU Conference on the Meiji Restoration*, Oct., 1983, pp.20-21.

技術을 개량하는 것을 大川一司 교수와 로소브스키 교수는 改良工學(improvement engineering)이라고 했다.

즉, “일본이 稀少한 資本을 철저하게 이용한 또 하나의 영역은 改良工學이다. 일본의 經濟的 近代化를 概觀해 보면 곧 알 수 있듯이 핵심적인 발명이란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基礎的인 技術은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도입됐지만 도입된 기술은 조직적으로 개량했다. 지금의 日本의 기업가들에게 이러한 활동은 뿌리 깊게 내려진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렸고, 수많은 역사적인 例를 들 수가 있다. 改良工學은 노동자의 資質을 향상시키며 자기가 만드는 제품에 대하여 주의깊은 分解와 섬세한 개량을 수반하는 結合의 활동이며 이것이 생산에 직결된다.”⁽¹²⁾

日本人이 남달리 改良工學에 뛰어난 까닭은 역시 日本人의 性格이나 國民性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¹³⁾ 그러나 일본의 한 技術開發의 전문가가 이것을 미국인과 일본인의 知力 分布狀況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미국인의 知力分布를 보면 엘리트와 大衆의 지식차의 분포가 넓고, 일본인의 경우는 그 중간의 위치한 계층이 많다는 것이다. 基礎研究는 엘리트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일본보다 優位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1925년에서 1955년에 걸쳐 세계에 군림한 美國技術의 우위는 이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技術突破가 없어지고 生産技術이 勝負를 결정할 때에는 「어떻게 만드느냐」(How to make)가 문제가 되며, 이것은 일본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1955년 이후 일본이 國際競爭力에서 우세하게 된 까닭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¹⁴⁾

今世紀에 들어와서 텔레비전, 트랜지스터, 半導體, 컴퓨터, 레이더, 原子力, DDT, 페니실린, 나이론, 포리에스텔섬유 등 技術革新이 이루어졌지만 1955년 이후 새로운 技術革新이 정체되었고 자동차나 텔레비전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요컨대 일본의 技術을 뒷받침한 것은 中間管理層 또는 勤勞層의 優位가 일본의 産業發展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경제를 이해하려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産業組織의 特有性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經濟發展은 歐美의 技術을 도입해서 이것을 모방하고 개량하는 과정이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革命과 生命工學(bio-technology)의 새로운 技術突破가 열리게 되자 지금은 선두주자(first runner)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것이다.

작금 美·日의 貿易摩擦이 세계경제에서 최대의 문제점으로 등장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

(12) 大川一司·H. Rosovsky 共著, 앞의 책, 1973年, pp. 266-268.

(13) 拙稿, 앞의 論文, 韓國經濟學會, 1986年, pp. 112-115.

(14) 收野昇 著, 『研究開發の知識』, 日本經濟新聞社, 1976年, p. 61.

다면 미국은 지나치게 소비하는 데서 貿易赤字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한편 일본은 지나치게 저축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日本이 이렇게 지나치게 저축하는 근본적인 원인도 역시 日本人의 特有的 性格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작금의 美·日貿易摩擦은 미국측에서 그 원인이 많다. 국내산업의 空洞化로 미국경제의 生産性的 低下, 增稅政策이 불가능한 社會的 風土 등 무역마찰의 원인을 해소시키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官民協調體制의 이른바 「큰 政府論」(big government)이 갖는 含蓄性이 內需振作을 어렵게 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은 1973년에 일어난 石油波動을 계기로 1975년부터 대량의 國債를 발행했고 1979년에는 增稅로 財政再建을 期했지만 自民黨이 總選舉에서 패배하자 「큰 政府論」에서 후퇴하여 增稅없는 財政再建策으로 行政改革을 추진하면서 「작은 政府論」(small government)를 표방해 왔지만 美·日貿易摩擦에서 오는 圓高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對應策으로 앞으로 政府支出의 擴大, 公的 金融의 比重(예를 들어 1984년 現在 郵便貯蓄은 個人金融資産의 32%나 차지하고 있음), 金利自由化의 지연 등을 감안할 때 “21世紀를 向한 「작은 政府論」이 정착하게 될지는 現段階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며, 정부의 介入主義가 뿌리 내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野村報告書」는 내다보고 있다.⁽¹⁵⁾ 이렇게 일본의 所得政策은 뿌리 깊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日本型 所得政策의 근저에 흐르는 經濟思想은 어떠한 것인가. 이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中國은 開港 당시 왜 經濟的 近代化의 蹄蹟을 닦는 데 실패했는가를 보기로 하자.

III. 왜 中國은 開港 당시에 실패했는가

日本과 나란히 開港의 압력을 中國도 받았지만 일본은 成功했고, 왜 中國은 經濟的 近代化에 실패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하나는 經濟論理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본래의 中國儒敎라는 思想的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다.

1. 曠시의 見解

한 마디로 말해서 中國은 그 당시 일본의 均衡成長과는 대조적으로 不均衡成長을 했고 국내의 潛在的 成長能力을 최대한으로 活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曠시 교수에 따르면 19世紀에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海外投資의 전형적인 投資패턴은

(15) 野村總合研究所 編, 앞의 책, 1985年, pp. 50-59.

原料 등의 이른바 天然資源開發產業(extractive industries)에 투자해서 선진국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후진국의 均衡成長을 저해시켰을 뿐 아니라 國內市場의 擴大를 막았고, 이것이 국내의 投資誘因을 저해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국이 工業化를 달성시키려면 선진국의 通商政策의 장벽도 있어서 內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2次大戰後의 일본의 重化學工業化 過程을 보아도 GNP에서 수출하는 이른바 輸出依存度는 불과 10% 내외였다는 것을 보아도 녀시의 주장은 옳은 것이라고 하겠다. 後發國(late comer)이 工業化를 완성시키려면 무엇보다 緊要한 要件은 內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輸出依存度는 40%를 넘고 있는데 이러한 發展戰略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지속적인 成長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녀시 교수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外국의 直接投資의 성격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¹⁶⁾

1930년대에 일본과 중국에 대한 海外投資는 최고수준에 달했는데 중국에 있어서의 海外投資의 80%가 민간의 直接投資였고 上海의 연안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天然資源開發에 투자가 이루어져 일본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國內市場을 보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은 先進國을 위한 周邊經濟(peripheral economy)로 전략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대조적으로 일본에 있어서 外국의 直接投資는 26%밖에 안되었고 그것도 3/4은 日本政府가 차관의 형태로 도입했기 때문에 국내의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자금을 할당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차관의 금액도 매우 적었고, 1930년대의 일본의 國內資本 形成率(國民所得에 대한 國內貯蓄率)은 12%에서 17%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이 經濟的 近代化의 初期局面에서 국내의 潛在的 成長能力을 최대한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지금도 일본의 國民貯蓄率은 1983년 현재 30.3%로 미국의 15.1%(1984년), 서독의 22.3%(1984년), 영국의 18.2%(1983년)에 비해 유독 높으며, 이것이 오늘날 美·日의 무역 마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2. 베버의 主張

80여년 전에 막스 베버(Max Weber)는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1905년)에서 資本主義經濟를 떠받치고 있는 힘을 「에토스」(ethos)라고 命名하면서 이것을 淸教徒들의 世俗內的 禁欲에서 찾았다. 그후 1917년에 「世界宗教의 經濟倫理」라는 論文을 발표하게 된다.⁽¹⁷⁾

(16) R. Nurkse, 앞의 책, 1955年, pp.90-91.

(17) 大塚久雄 著, 『社會科學における人間』, 岩波新書, 1977年, pp.179-189.

베버는 이 論文에서 儒敎와 淸敎(淸教)를 비교하는 가운데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까닭을 儒敎나 「現世肯定」의 「營利寬容」의 樂觀論, 이른바 「外面的 品位的 倫理」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1905년)에서 基督教 중에서도 淸敎徒들이 가졌던 儉約과 勤勉精神이 그 당시 미국경제의 자본축적을 가능케 했고, 직업을 하늘이 내린 天職으로 알고 일하는 職業倫理가 資本主義를 미는 原動力이라고 보았다. 베버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에 있다고 보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20世紀 초엽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발흥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발전과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의 新保守主義(neoconservatism)을 대변하는 크리스톨(I. Kristol)의 주장은 國內으로는 원래 미국이 가졌던 이러한 資本主義의 精神을 부활시켜야 미국의 경제문제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베버는 자본주의의 정신을 淸敎徒들이 가졌던 「世俗內的 禁欲」의 精神에서 찾았는데, 이를 「現世拒否」의 「內面的 品位的 倫理」라고 했다. 現世拒否란 現世를 하나의 나그네 人生으로 보고 來世를 참다운 고향으로 보는 基督教 信仰을 말한다. 內面的 品位的 倫理란 사람의 善意의 마음가짐, 즉 隣人愛를 말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淸敎」의 倫理가 現狀을 改革하려는 능동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한편 베버가 儒敎를 「現世肯定」과 「營利寬容」의 「外的 品位的 倫理」라고 보는 까닭은 外面의 形式이라든가, 儀禮, 마음의 움직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外面의 形式을 重視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儒敎의 倫理는 現狀을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現狀에 순응하려고 하며, 따라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베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儒敎의 外面的 品位的 倫理와 중국의 官僚制度를 연결시켰다. 중국은 家產官僚制國家였다. 일본의 封建制度 아래서 土地는 君主가 部下들에게 분할해서 지배하도록 했지만 중국의 경우는 天子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家產官僚制 國家였고 皇帝型 權力構造를 가지고 있었다. 科擧의 시험을 통과한 文人官僚들을 紳士라고 불렀고, 이들이 權力構造를 뒷받침했다. 이러한 舊中國의 家產制 官僚層의 外的 社會的 利害狀況이 儒敎의 「外面的 品位的 倫理」와 부합되어 있었다고 베버는 보는 것이다. 또 家產制 官僚層에 속하는 사람들은 많은 서적을 읽었고 최고의 지식을 몸에 부친 知識人層에 속했으며 이러한 家產制 官僚로서 無知의 一般大衆을 통치했고, 따라서 傳統主義的 생활태도를

(18) I. Kristol, *Reflections of A Neoconservative, Looking Back, Looking Ahead*, 1983, pp. 139-176.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배버는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儒敎는 傳統的 秩序 위에 서서 現狀에 자기를 언제나 순응시켜 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外面的 品位를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윤리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배버는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儒敎가 왜 家産制 官僚層의 外的 社會的 利害狀態를 變革하고 성장시키지 못하고 이에 순응하는 형태로 공명해 버리고 말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배버는 儒敎와 佛敎를 비교하면서 역시 儒敎의 「現世肯定」의 樂觀論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이러한 전통을 가졌던 중국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성장하기 시작하였는가. 이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일본의 經濟思想에 흐르는 이른바 日本型 儒敎精神의 내용을 보기로 하자.

IV. 日本의 統濟思想은 어떠한 것인가

1. 日本型 儒敎精神

런던大學의 森嶋通夫 교수는, 일본의 資本主義를 밀고 온 「에토스」(精神)로서 일본이 갖는 고유의 儒敎精神을 들고 있다.

원래 孔子는 仁·義·禮·知·信·忠·孝를 德目으로 重視했지만 그 중에서도 「仁」의 개념은 人道的 중심으로 되어야 할 덕목이라고 했다. 孔子는 가족내에 있어서의 肉親間的 자연스러운 애정이 社會道德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人間愛가 家族을 초월해서 미지의 사람들에게도 중요시없이 확산될 때 人間性은 완전하게 되어 社會秩序는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人間愛를 몸에 지닌 사람을 仁者 또는 君子라고 했다. 孔子는 仁者가 되는 것을 인간수양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다. 그래서 孔子는 “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禮가 아니면 듣지 말고, 禮가 아니면 動하지 말라.” “君子는 義를 잘 알고 小人은 利를 잘 안다.” “利를 보게 되면 義를 생각하라”고 말했다.⁽¹⁹⁾

孔子는 君子가 되기위한 外面的 規範 또는 德行의 準則으로써 「禮」를 특히 강조하였다. 그래서 孔子는 “자기의 利己의 欲望을 억누르고 禮로 돌아가서 仁을 행하라. 禮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한 禮는 私利私欲을 억누르고 社會의 公義를 이루는 道德的 規範의 절차로써 重視하였다. 이렇게 보면 禮를 통해서 實現되는 仁은 對人關係에 있어서 자기보다는 他人을 먼저 생각하고, 個人보다는 그 社會 또는 國家를 위하는 데서 가능한 德目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6世紀경에 佛敎, 儒敎, 道敎의 세 宗教를 동시에 韓國을 경유하여 받아들였다고

(19) 尹絲淳, 「儒敎倫理의 再檢討—儒敎倫理에 있어서의 仁·義의 概念」, 『現代社會와 傳統倫理』,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6年, p. 91.

한다. 森嶋通夫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儒敎가 일본에 도래하자 「仁」의 개념이 「忠」의 개념으로 대체됨으로써 日本型 儒敎精神(Japanese ethos)이 형성되었다고 말하고, 일찌기 베머가 「世界宗教의 經濟倫理」研究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日本論을 제창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20)

첫째, 일본의 儒敎史를 돌이켜 볼 때 「仁」의 개념이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다. 중국의 儒敎가 「仁」 중심의 人道主義的 性格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의 儒敎는 「忠」 중심의 儒敎이며, 民族主義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忠」의 개념은 良心에 대한 誠實을 말하지만 日本에서는 君主에게 專心全力하는 忠誠心을 말하는 것이다. 즉, 中國人は “臣下는 자기의 양심에 거り끼지 않는 誠實性을 가지고 君主에게 봉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나 日本人은 “臣下는 君主에게 全生命을 바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고 한다. (21)

둘째, 明治政府는 武士階級을 폐지하고 國民皆兵制를 택했는데 1882년 天皇이 日本軍人에게 내린 勅諭에서 儒敎의 德目 중에서 忠·禮·勇·信·儉素의 5個 項目이 강조되었지만 「仁」에 관해서는 별로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은 聖德太子(574년~622년) 이래 거의 일관하여 中國儒敎의 仁·義를 輕視하고, 忠·孝·知를 강조해 왔다. 聖德太子는 日本人의 教育수준을 中國人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중국 것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받아 들이지 않았고, 중국의 재능을 일본의 精神에다 接木시켰다는 것이다.

넷째,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神道の 要素(神社참배)를, 政治體制의 급변이 있을 때에는 儒敎의 要素를 강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忠」을 강조하는 日本型 儒敎精神이 일본으로 하여금 歐美와의 軍事的·科學的·技術的 落差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強行軍하는데 있어서 생명까지도 비치게 한 것이라고 森嶋通夫 교수는 밝히고 있다.

2. 集團主義와 個人的 責任感

日本の 經濟的 近代化를 뒷받침한 원동력은 역시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것을 수출하는 加工貿易이었으며, 이것을 구현시키는 데 경영자나 근로자 쌍방에게 있어서 기업은 富의 源泉이라는 共同運命體에 대한 集團意識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으며 年功序列, 企業別 勞組, 終身雇傭制는 이러한 共同運命體로서의 企業을 발전시키고 존속시

(20) Michio Morishima, 앞의 책, 1982年, 韓國語版, pp. 21-129.

(21) Ibid., p. 6.

키기 위하여 필요한 制度였고 이러한 所屬集團에 대한 忠誠心은 日本型 儒敎精神에서 왔다고 한다.

이러한 日本人의 集團主義를 미국의 크리스토퍼(R.C. Christopher)는 『日本人의 精神』(1983년)이라는 저서에서 文化人類學的 견지에서 분석했는데 集團主義에 관련되는 부분만을 골라서 그 내용을 간추려 보기로 하자.⁽²²⁾

첫째로 日本人은 人種적으로 보나 어느 나라보다 同質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西歐化하면서 자신들의 主體性(identity)에 대한 강렬한 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日本社會는 閉鎖的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日本人은 나라에서 자기 會社에까지 所屬集團에 대한 忠誠心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效率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넷째로 日本人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合意(consensus)를 얻은 다음에 행동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日本人의 기본적인 관점은 「이데올로기」도 종교도 아니며, 所屬組織의 福利를 위해서는 용이하게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때로는 西洋人으로부터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기 위한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日本人은 外國의 思想이나 制度 그리고 技術을 흡수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外國人과의 접촉은 대부분의 경우 싫어한다는 것이다. 日本人은 內心으로는 외국에 대해 優越感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크리스토퍼는 말한다.

이와 같은 日本人의 行動樣式에 대하여 크리스토퍼는 文化人類學的 견지에서 그 뿌리를 캐고 있지만 集團主義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日本人의 所屬集團에 대한 忠誠心인데 크리스토퍼는 日本人은 실패도 성공도 集團全體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나는 몰랐다는 말은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의 責任感이 上昇作用하며, 歐美의 個人主義와는 달리 集團主義에서 個人主義가 指向하는 個人의 責任感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日本人의 順應力(柔軟性)이다. 앞에서 언급한 合意方法은 “이들의 制度(硬直性)를 매우 유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日本의 篠原三代平(시오하라 미요헤이) 교수도 戰後 日本이 重化學工業 中心의 不均衡成長을 이겨낸 것도 이러한 產業組織의 柔軟性에서 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²³⁾

요컨대 크리스토퍼는 오늘의 日本이 美國과 나란히 經濟大國으로 부상하게 된 「에토스」는 美國과는 달리 서로 상반되는 「強力한 集團意識」과 거기에서 上昇作用하는 「個人의 責任感」을 훌륭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日本人의 特異性에서 찾고 있으며, 이러한 日本人의

(22) R.C. Christopher, *The Japanese Mind: The Goliath Explained*, 1983, 徳山三郎 譯, 『シャパニーズ マインド』, 講談社, 1983年, pp. 35-59.

(23) 篠原三代平 著, 『經濟大國の盛衰』, 東洋經濟新報社, 1982年, pp. 174-180.

「에토스」는 西紀 2050년에 가서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는 것이다.⁽²⁴⁾

1987년 5월 현재 미국의 貿易收支 赤字幅은 1천 6백억달러, 財政赤字는 2천억달러에 달했다. 貿易收支 赤字에서 6백억달러가 對日赤字이다. 미국경제의 生産性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美國인이 지나치게 소비한다는 것은 베버가 말한 資本主義의 精神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전지에서 크리스틀 교수가 제창하는 資本主義의 精神의 復活運動은 옳은 것이라고 하겠다. 1986년 현재 일본의 經常收支 黑字幅은 9백억달러에 달했다. 日本人은 지나치게 저축하기 때문이지만 따져 보면 이는 이상에서 언급한 日本人의 特異性에서 오는 것 같다.

V. 왜 中國은 지금 成長하는가

1. 스탈린·레닌방식에서의 脫皮

1952년 말에 中國은 經濟計劃의 최고기관인 國家計劃委員會가 조직되었고, 1955년에 第1次 5個年計劃(1953년~1957년)이 발표됐다. 그후 1980년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5個年計劃이 形式的으로 되풀이 되었다.

第1次 5個年計劃의 目標設定을 보면 「社會主義的 工業化의 初步的 土臺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고 重工業優先의 發展戰略이 천명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國家財政 支出計劃(40.9%)에서나 基本建設投資에 대한 國家投資(58.2%)에 있어서나 工業에 압도적으로 그 비중이 크다. 工業에 대한 國家投資에서도 生産財 生産部門(重工業)에 88.8%, 消費財 生産部門에는 불과 11.2%밖에 되지 않아 重工業優先의 計劃임을 볼 수 있다. 한편 農業에 대한 國家財政 支出計劃은 11%, 國家投資計劃은 7.6%에 불과하다.⁽²⁵⁾

이러한 重工業化 計劃이나 投資政策의 기본방향을 보더라도 소련의 重工業優先의 발전양식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러한 重工業化 優先政策은 明治時代의 일본의 發展戰略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農業을 키워서 거기에서 發展의 剩餘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農業을 짓밟으면서 社會主義 工業化를 추진시켰던 것이다.

1978년 말에 열린 中國共產黨 第11期 3中全會에서 소련의 스탈린·레닌方式의 발전전략

(24) R.C. Christopher, 앞의 책, 1983年, p. 355.

(25) 池田誠, 田尻利, 山本恒人, 西村成雄, 奥村哲 共著, 『中國工業化の歴史』, 法律文化社, 1982年, pp. 187-192.

에서 탈피하여 指導思想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래동안 中國의 經濟政策을 입안해 왔고, 현재 中國社會科學院長의 요직에 있는 馬洪은 발전전략의 전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²⁶⁾

“中國은 第1次 5個年計劃에 착수한 이래 社會主義 建設에 대한 經驗이 부족한 탓으로 소련式的 發展戰略을 모방해 왔고 그후 左派가 주도한 指導思想의 잘못으로 發展戰略의 目標選定이나 目標實現의 方案에 커다란 과오를 범했다”고 말하고 특히 1958년에 「大躍進運動」은 中國經濟를 크게 뒤떨어지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馬洪院長은 그의 著書『中國經濟發展의 新戰略』(1985년)에서 스탈린·레닌方式의 발전전략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일찍이 소련은 重工業의 優先的 발전을 견지한 기간이 있었다. 소련의 經驗은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은 社會主義 工業化의 길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말하는 同志들도 있다. 확실히 소련의 경우는 이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소련이 일찍부터 世界에서 유일한 社會主義國家이며, 그 당시 帝國主義의 위협에 포위되어 있었다. 소련과 같은 방식은 실은 특수한 歷史的 條件 아래서 강구된 특수한 방법이며 社會主義 工業化의 일반적인 法則을 반영할 수는 없다. 더우기 소련이 오랫동안 重工業의 發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近代 및 現代에 있어서 工業生產發展의 一般的 法則이 요청하는 것을 배반했다. 이러한 方式의 工業發展은 특히 히틀러의 파시즘의 침략에 대항하는 軍事力을 강화시키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소련의 經濟構造를 매우 不均衡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 스탈린 時代에 소련이 重工業 優先政策을 택한 것은 社會主義 소련의 經濟的 獨立과 國防力을 강화시키는 데 있었고, 후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 時代에도 이러한 重工業 優先政策을 밀었던 까닭은 역시 소련의 社會帝國主義의 軍事力擴張政策을 期하려는 데 있는 것이며, 社會主義의 發展과 이러한 전혀 다른 의미에서 社會的 意義를 분명히 區別해야 하는 것이다. 소련도 이러한 經濟的 戰略을 견지했기 때문에 소련의 經濟가 격심한 不均衡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고 馬洪 院長은 말하고 있다.⁽²⁷⁾

그는 계속해서 重工業 優先論을 理論的으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世界의 많은 經濟的 先進國의 經驗을 보면 重工業은 農業, 輕工業이 발전한 토대 위에서 발전했다”고 말하고 “農業이 발전한 다음에 輕工業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 기타 生産部門의 生産手段이 발전했다”고 밝힌다. 이는 바로 녀시流의 均衡成長論을 의미하며 동시에 日本의 發展經驗

(26) 總合研究所 編, 『現代中國의 經濟システム—日本經濟シンポジウム報告—』, 筑摩書房, 1986年, pp. 3-14.

(27) 馬洪 著(張風波 譯), 『中國經濟發展의 新戰略』, 有斐閣, 1985年, pp. 59-63.

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는 마르크스(K. Marx)가 『政治經濟學批判』의 序說에서 “消費가 없으면 生産도 없다”고 했다고 말하고 어떠한 社會나 生産도 모두 중국에는 消費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다음에 生産과 소비의 이러한 관계는 社會的 生産의 一般的 法則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마르크스의 『資本論』(第1卷 第13章)의 「機械와 大工業」의 第1節(機械의 發達)를 인용하면서 마르크스도 “近代的 輕工業이 일정한 단계까지 발전한 다음에 重工業은 가장 중요한 部門에서 近代的 機械製造業의 發展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後者の 發展은 前者를 그 기초로 해서 그리고 前者의 필요에 따라 발전해 간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中國은 理念的으로도 완전히 스탈린·레닌方式에서 탈피하여 明治期の 日本이 經濟的 近代化의 初期局面에서 취했던 政策基調를 다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4大 現代化 目標設定

1976년 9월에 毛澤東이 사망한 후 이른바 文革體制가 무너지고 華國鋒體制가 등장한다. 1975년의 第4期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周恩來가 「4大 現代化」의 路線을 제시했고, 1978년에 열린 第5期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國民經濟發展 10個年(1976년~1985년) 計劃要綱草案」이 채택되어 農業·工業·科學技術·國防의 4개 분야에서 現代化를 高速度로 실현시켜 今世紀中에 中國國民經濟를 世界의 前列에 부각시키려는 이른바 「社會主義 工業化의 新段階」를 제창하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10個年計劃」의 基本戰略은 均衡成長에 둔 것이며 農業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農業에서는 12개의 商品化 食糧基地를 건설하고 全國의 國營農場을 강화시킴으로써 商品化 食糧의 供給量을 3배에서 4배로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農業에 있어서의 重點事業이다. 이 밖에 食糧低產量 地域의 自給化, 全國機械化率 85%를 달성시키고, 多角經營化·自由地生産의 振興 등을 들 수 있으며, 食糧 4억톤을 생산하는 것을 計劃目標로 삼고 있다.

다음으로 工業計劃에 있어서는 鐵鋼·非鐵金屬·石炭·石油(가스油田)·發展분야에서 複數의 大型基地를 건설하고, 鐵道新幹線, 重點港灣의 重點輸送網을 건설하는 120개의 大型事業이 計劃의 中心이 되어 있다. 이 밖에 機械工業의 分業과 協業을 體系化시키는 計劃, 그리고 輕工業을 重視하는 計劃으로 짜여져 있으며, 특히 플랜트의 도입을 포함해서 中心 프로젝트의 建設이 계획되어 있다. 工業計劃의 目標은 鐵鋼 6천만톤의 生産體制를 확립시키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10個年計劃」을 달성하는 데 所要되는 資金은 華國鋒의 말에 의하면 “國家의 財政收入과 基本建設 投資額은 모두 過去 28년간의 總額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基本建設의 所要投資額은 약 6천億元이라는 거액에 달하며, 8년간에 해마다 750億元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28)

4大 現代化 目標設定의 經濟的 측면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것인데 이 計劃에 직접 참여한 馬洪 院長이 보는 指導理念의 轉換이 갖는 의의를 간추려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29)

첫째로, 指導思想의 轉換에 따라 經濟發展의 戰略도 달라졌다. 單純한 戰略目標의 설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戰略目標을 세움으로써 第6次 5個年計劃부터는 國民經濟發展計劃을 社會經濟發展計劃으로 改稱했다. 物質文明의 건설과 아울러 精神文明의 건설을 一體化하고 節度있고 人格을 높히는 데 重點을 두어 中國의 特徵을 갖는 社會主義社會의 건설을 가능케 하려는 데 있다고 했다.

둘째로, 量的 成長에서 質的 成長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質的 經濟效率을 높힘으로써 國民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했다. 社會主義 經濟建設이란 사람들의 物質的, 文化的 要求(needs)를 충족시키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세째로, 過去의 重工業 優先政策을 비판하고, 國民經濟의 均衡成長을 강조했다. 특히 農業, 에너지, 交通, 教育, 科學을 金후의 經濟發展戰略에서 重點을 두었고, 經濟構造를 合理化하고, 社會·經濟의 名部門, 名方面에서 調和있는 發展을 指向한다는 것이다.

네째로, 外延擴大의 擴大再生產方式에서 內包充實의 擴大再生產方式으로서 轉換을 期한다는 것이다. 이는 國內의 潛在的 成長能力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86년부터 시작된 第7次 5個年計劃에서는 建設의 重點을 既存企業의 技術改造와 改建 등에 두었다고 한다.

다섯째로, 人口增加를 억제하기 위한 人口政策, 人的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과 科學의 發展, 知識尊重과 人材尊重을 가장 중요한 項目으로 1984년에 열린 第12期 三中全會가 결정한 經濟體制 改革案에서 明記했다고 한다.

여섯째로, 獨立自主·自力更生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對外經濟合作과 技術交流를 전개하는 開放政策이다. “過去 自力更生을 一面的으로 自給自足, 閉關自守라고 잘못 해석했기

(28) 池田誠外, 앞의 책, 1982年, pp. 257-264.

(29) 馬洪 著(張風波 譯), 앞의 책, 1985年, pp. 4-6.

때문에 스스로의 발전을 제약했다”고 본다. 第11期 三中全會 이후부터는 對外開放政策을 長期的인 基本政策으로 삼아 각국의 長點을 배우고, 자기의 短點을 보충하며, 外資나 技術, 先進國의 管理方法을 도입하여 4大 現代化의 目標을 달성시키는 데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로, 가장 중요한 事項은 經濟體制改革이라는 것이다. “閉鎖적이고 融通性이 없는 經濟모델에서 開放적이고 生氣와 活氣에 넘쳐 흐르는 經濟모델의 轉換”이라고 했다.

지금 中國은 高度成長을 하기 시작했다. 1976년에서 1985년의 年平均 實質成長率은 7.7%로 높은 기록을 보였다. 특히 1978년부터 앞에서 보았듯이 中央集權의 計劃經濟體制가 서서히 分權化됨에 따라 社會의 效率化가 이루어져 1981년에서 1985년의 年平均 實質成長率만을 보면 무려 10%를 기록했다. 野村報告書에 의하면 中國은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年平均 實質成長率은 7%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 기간에 걸쳐 7백억달러의 外資를 도입하더라도 外資利用에 따른 元利返濟 負擔比率(對中進出企業의 配當을 포함)은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아 外資利用은 증가할 可能性이 크다고 전망했다.⁽³⁰⁾

이렇게 오늘의 中國經濟는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그 원인은 指導理念의 轉換이라고 할까 理論的으로는 逆시流의 均衡成長을 통하여 國內의 潛在的 成長能力을 발휘하면서 國內市場을 확장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現在 中國은 農村經濟에 生産責任制를 도입한 農業改革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에 農業과 農村工業의 生産量은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이 경험을 토대로 工業部門(정확하게는 非農村部門)의 企業管理體制와 企業相互間의 市場메카니즘에 대하여 어떻게 體制改革을 추진하느냐가 當面課題로 남아 있다.

지난 第12期 三中全會에서 결정된 經濟體制改革의 基本方針을 보나 이번에 열렸던 第13期 一中全會(1987년 10월 2일)에서 그동안 物質文明을 重視해 온 改革派와 精神文明을 重視해 온 保守派의 對決에서 鄧小平의 改革派가 승리하여 物質文明의 창달을 천명한 것을 보면 앞으로 中國은 社會主義 經濟의 基本原則을 전제로 하면서 企業間의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市場機構(market mechanism)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競爭的 社會主義 經濟의 路線을 추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다음의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첫째는 競爭的 市場機構를 指向하는 경우 결국은 資本主義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요컨대 中國은 단계적으로 資本主義 經濟로서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30) 野村總合研究所 編, 앞의 책, 1985年, pp. 110-112.

문제이다. 둘째는 社會主義와 競爭的 市場機構는 原理的으로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세째로는 社會主義 經濟의 基本的 前提에 서서 그것을 競爭的 市場機構라는 형태로 運營한다는 것이 가령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實際問題로서 오늘의 中國에서 그 現實性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아뭇튼 일찌기 배려가 儒敎의 「外面的 品位的 倫理」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고 했던 中國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10億人口의 壯大한 實驗」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3. 文化大革命,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의 中國問題를 거론하는 데 있어 文化大革命(1966년~1976년)이 오늘의 指導 理念의 轉換에 끼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文革」은 오늘에 와서 보면 2천만에 달하는 犧牲者를 낸 「內亂」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엄청난 희생이 오늘의 中國을 있게 하는 데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선 「文革」은 都市와 農村, 工業과 農業, 精神勞動者와 肉體勞動者간의 격차, 이른바 三差를 제거하자는 것이 文革派의 標語였지만 실제로는 官僚派나 資本主義의 路線을 주장하는 實權派를 철두철미 비판하는 데 있었다고 森嶋通夫 교수는 말하고, 文革은 “마르크스主義者에 의해 武裝되고 合理化된 道敎의 儒敎(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主義者들)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했다.⁽³¹⁾

文化大革命에서의 儒敎批判은 2千여년의 中國歷史에서의 支配權力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해 온 儒敎에 대한 비판이었고, 특히 支配層의 이데올로기로서의 儒敎思想이 被支配者로 하여금 의타적이고 부정적이게끔 만들었던 점이 주요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劉少奇,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實權派가 儒敎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일종의 意識改革의 수단으로 儒敎를 지지하는 입장인 데 반하여 毛澤東(文革主導勢力)은 儒敎의 禮와 仁愛가 오히려 中國現實이 당연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人民들의 적극적 노력을 둔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毛澤東의 이러한 비판은 그전까지 의타적이고 맹종적이고 타협적이었던 中國人民의 國民性을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能動性으로 變化시키고 改造하려는 데 그 意圖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毛澤東이 中國의 傳統思想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斷言할 수는 없지만 儒敎, 道敎 등의 複合的인 수용이 있었음은 많은 研究들이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상세히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 森嶋通夫 교수는 우선 宗教를 세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제 1의 종류는 支配勢力을 정당화하는 데 봉사하는 宗教, 제 2의 종류는 被支配者 또는 個人을 救濟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合理的 宗教, 제 3의 종류는 個人救濟를 위한

(31) Michio Morishima, 앞의 책, 1982年, 韓國語版, pp. 202-203.

神秘的 宗教로 구분하고 基督教의 自由主義를 제 2의 宗類, 儒教를 제 1의 宗類, 그리고 道教를 제 3의 宗類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³²⁾

森嶋通夫 교수는 계속해서 “孫逸仙(1866년~1925년)이든 毛澤東(1893년~1976년)이든 간에 中國의 革命家들은 自由主義·마르크스主義 및 기타 西洋思想을 도입하여 이로 말미암아, 土着의 反抗精神을 윤리적이고 동시에 집요한 것으로 새롭게 鍊成하였던 것이다. 日本人의 精神姿勢에 의한 政治體制革命에 지나지 않았던 明治革命과 비교해 본다면 中國革命이 政治革命이었을 뿐더러 洗腦를 요구할 정도로 기본적인 精神姿勢의 革命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고 했다.⁽³³⁾

筆者는 이 분야의 專門家가 아니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70여년 전에 배버가 본 中國과 오늘의 中國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본다.

VI. 儒教文化圈의 可能性에 대하여

1. 世界經濟의 成長軸으로 登場

앞으로 21세기까지 불과 10여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요즘 大西洋의 時代는 끝나고 『21세기는 太平洋의 時代다』든가 또는 『21세기는 日本·韓國·臺灣이다——東亞세아가 世界를 리드한다——』 등의 表題가 붙은 책자들이 나돌고 있다.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상 日本과 西太平洋地域(韓國, 中國을 포함하는 22개국)을 포함하는 아세아·太平洋地域은 지금 世界經濟에서 成長軸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2>는 日本의 野村總合研究所가 世界經濟의 動向分析을 한 資料에다⁽³⁴⁾ 筆者가 수집한 기타 資料를 가지고 보충한 것인데 이 표를 보면 확실히 아세아·太平洋經濟는 世界經濟에서 成長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 世界 GNP에서 占하는 各地域의 比重과 그 展望

地 域	年 度	1985年	1995年	備 考
美 國		25%	22%	2次大戦 직후 50%
日本(西太平洋地域)		10% (6%)	15% (7%)	日本은 1960年代에 2%~3%
EC		17%	20%	
소련·東歐圈(소련)		19%(13.5%)	18%	소련은 10年前에 15.5%

(32) Michio Morishima, 앞의 책, 1982年, 韓國語版, pp.197-198.

(33) Ibid., p.202.

(34) 野村總合研究所 編, 앞의 책, 1985年.

이 표는 오늘의 世界經濟가 4極化 現象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선 美國은 1985년 현재 世界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25% 정도인데 1995년에 가면 22%로 급격히 떨어진다. 2次大戰 직후의 美國의 비중은 무려 50%를 차지했다는 것을 보면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60년대의 일본은 불과 2%에서 3%밖에 안되었는데 현재 10%를 차지하게 됐고, 1995년에 가서 15%로 높아지는데 반하여 미국은 계속해서 22%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오늘의 美·日의 貿易摩擦의 根源을 찾을 수가 있다.

한편 소련은 10년전만 하더라도 世界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였던 것이 현재 13.5%로 떨어지고 있다. 美國과 소련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을 흔히 軍備支出에서 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美·蘇간에 現在 進行되고 있는 軍縮協商은 이루어 지리라고 내다 보는 見解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西太平洋地域은 世界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한국, 대만, 홍콩의 東北아세아, ASEAN諸國,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22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세아의 新興工業國들(NICs)은 重化學工業化에도 일단 성공했고, 先進諸國으로부터의 技術導入으로 이른바 後發性利益을 享有하고 있던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995년에 가면 日本과 西太平洋地域이 世界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가 되어 미국의 그것과 같아진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작금의 달러貨의 價値하락과 일본의 圓貨切上 그리고 아세아의 新興工業國들(NICs)의 換率의 評價切上으로 미루어 보아 아세아·太平洋經濟가 世界經濟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日本의 經濟企劃廳의 諮問機關인 21世紀의 太平洋地域 經濟構造研究會가 펴낸 「太平洋時代의 展望」에 관한 報告書를 보면 西紀 2000년까지 世界全體의 經濟成長率을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반해 太平洋地域은 전체적으로 4% 정도로 世界經濟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리고 韓國, 臺灣, 싱가포르의 아세아 新興工業國들(NICs)의 成長率은 매우 높아서 앞으로 7%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이들 나라들은 儒敎文化圈에 속하는 나라들로서 이 文化圈에는 日本, 中國大陸, 香港, 北韓, 越南 그리고 東南 아세아의 華僑社會도 포함된다. 유교문화권이냐 함은 漢字文化圈이라고도 하는데 「짓가락을 사용하는 文化圈」을 말한다.

특히 中國은 4大 現代化 目標設定에서 今世紀末에 1人當 GNP 1천달러를 목표로 삼고 있다. 儒敎文化圈에 속하는 여러 나라들은 21世紀 초엽에는 香港, 싱가포르의 1人當 GNP가 1萬달러, 臺灣이 1萬달러에서 1萬 3천달러, 韓國은 8천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

다. 日本은 이때 가면 1人當 GNP가 2萬달러가 되며 日本, 韓國, 臺灣의 總人口는 2億, 總 GNP는 世界 GNP의 약 20%를 차지하게 되어 미국이 世界 GNP에 占하는 비중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이다.⁽³⁵⁾

이렇게 지금 儒敎文化圈은 世界經濟의 成長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2. 多樣한 儒敎精神

中國에서 孔子가 儒敎를 創始하고 그것이 하나의 완비된 思想體系로 정립되어 古代文明이 隆盛期에 달한 것은 紀元前 5世紀에서 3世紀에 걸쳐서였다. 그후 漢나라(BC 3世紀 말에서 AD 3世紀 초)가 儒敎를 指導理念으로 내세우면서 孔子의 儒敎는 國家의 支配權力을 合理化시켰고 그 統治方式을 일종의 道德政治로 美化시키는 道具로 전락한다. 이 때에 이르러 儒敎는 孔子가 강조한 對人關係의 倫理德目으로서의 「仁」보다는 支配者에 대한 「忠」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질된다. 이렇게 變質된 儒敎가 韓半島의 三國에 전파·수용되었고, 또 韓國을 거쳐 日本에 수용된다. 그 당시 三國은 이 變質된 儒敎를 당시 古代國家體制의 정비에 效率的으로 이용한다. 그러므로 수용되는 초기단계부터 儒敎는 韓國에서 거부감 없이 자리 잡게 되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儒敎는 다시 日本에 전파되어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韓國 그리고 日本에서 「仁」 보다는 「忠」을 중시하게 되었던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 물론 中國은 스스로 世界文化의 中心에 있다고 해서 「中華」라고 했다.⁽³⁶⁾ 그리고 韓國이나 日本 그리고 越南은 周邊文化社會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儒敎를 받아들일 때 나라에 따라 時代에 따라 儒敎가 갖는 여러 德目 중에서 어느 것을 보다 重視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문제를 專門家의 힘을 빌려서 보기로 하자.⁽³⁷⁾

이미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孔子는 「仁」의 仁德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儒敎的 人道主義를 제창하였고 中國에서는 이를 매우 重視하지만 日本에서는 「仁」의 개념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일본이나 한국은 「忠」이라는 意識, 즉 忠誠心이 전통적으로 중국보다 강했다는 것이다. 특히 德川 封建體制 아래서 日本 武士의 「忠」은 중국이나 한국의 士大夫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며, 일본의 5倫은 國家主義的이며 忠孝의 一致를 주장하지만 「孝」보다는 「忠」이 上位에 위치한다고 한다. 한편 中國人은 「禮」를 尊重하지만 日本

(35) 中嶋嶺雄, 「いままぜ儒敎文化圈か一東アジアの活力とその文明的位相」, 『中央公論』, 1987年 8月號, pp.162-163.

(36) 日高普 著, 『日本經濟のトポス—文化史的考察—』, 青土社, 1987年, pp.18-31.

(37) 中嶋嶺雄, 앞의 論文, 中央公論社, 1987年 8月, pp.156-159.

人은 「義」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中嶋嶺雄(나카지마 미네오) 교수는 한국의 金日坤 교수의 著書『儒敎文化圈의 秩序와 經濟』(名古屋大學出版會)의 업적을 들면서 金日坤 교수가 강조한 儒敎文化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家族集團主義에 의한 社會秩序의 유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韓國의 經濟發展에 있어서 財閥그룹의 家族集團主義를 그 例로 들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우선 家族集團主義란 「孝」 중심의 血緣的인 結合原理를 말한다. 渡邊利夫(와다나베 도시오) 교수는 日本의 경우 血緣의 개념보다 家産의 개념이 우선한다고 한다. 家産을 계승하기 위해 血緣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養子로 하여금 家業을 계승시키는 전통은 江戸時代부터 내려오고 있으며 明治時代 이후의 企業의 發展史를 돌이켜 보아도 血緣的인 同族이 財閥經營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극히 적으며 “三井, 住友의 大財閥도 直系家族이 經營에 직접 참여한 것은 創業期를 제외하고서는 없었다.”⁽³⁸⁾

戰後 美國의 占領軍總司令部(GHQ)는 2次大戰 이전에 日本에 군림했던 이른바 문어발식 財閥그룹을 해체했고 經濟的인 民主化를 단행했다. 그후 1960년대에 오면 日本의 企業은 「所有」와 「經營」이 완전히 분리되어 企業主가 소유하는 株式은 불과 몇 %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기업의 「所有」와 「經營」이 쉽게 분리되는 원인도 역시 血緣의 개념보다 家産의 개념을 重視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儒敎精神이라고 해도 매우 多樣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찌기 베버가 否定的으로 보았던 儒敎文化圈이 지금 世界經濟의 成長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根源은 무엇인가.

森嶋通夫 교수는 『왜 日本은 ‘成功’하였는가—日魂洋才—』(1982년)의 著書 끝머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어진 이데올로기는 歷史의 轉換期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日常生活의 經濟行動까지도 속박하는 법이다. 따라서 日本經濟가 歐美의 自由企業體制와 다르듯이 中國의 社會主義 經濟도 소련經濟와 크게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올 發展過程을 규정하는 過去를 무시하는 경우 나라의 發展은 있을 수 없다. 歷史的인 考察은 社會科學에 있어서 똑같이 중요하다. 歷史를 무시한 社會科學的인 思考는 現實에 대한 1次的인 接近으로써 有效한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다. 歷史的인 配慮없는 經濟政策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日本에서 성공한 정책이 英國에서 성공한다는 보장

(38) 渡邊利夫 著, 『韓國—ヴェンチャー・キャピタリズム(Venture Capitalism)』, 講談社, 現代新書, 1986年, pp. 118-121.

은 없다. 반대의 경우도 진실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過去로부터 이어받은 精神에 있어서, 사람들의 行動樣式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모든 文化的 特性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日本과 中國은 서로 다르다. 日本은 이미 世界에서 經濟大國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日本은 有史以來 한번도 外侵을 당한 일이 없는 섬 나라이다. 中國은 「10億人口의 壯大한 實驗」을 하면서 지금 막 高度成長을 시작했다.

參 考 文 獻

- 尹絲淳, 「儒教倫理의 再檢討—儒教倫理에 있어서의 仁·義의 概念」, 『現代社會와 傳統倫理』,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6年.
- 李亨純, 「明治維新과 經濟發展」, 『亞細亞研究』,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84年 7月.
- 李亨純, 「日本은 어떻게 해서 成功하였는가? : 經濟大國으로 가는 세 가지 條件」, 『經濟學研究』, 韓國經濟學會, 제 34집, 1986년 12월.
- 韓國產業研究院 編, 『向後 美·日經濟關係의 展望과 우리의 對應』, 1987년 5월.
- I. Kristol, *Reflections of A Neoconservative, Looking Back, Looking Ahead*, Basic Books, Inc., Publishers, New York, 1983.
- Michio Morishima, *Why has Japan 'Succeeded'? Western Technology and the Japanese Ethos*, 1982. 李基俊 譯, 『왜 日本은 '成功' 하였는가——魂洋才—』, 一潮閣, 1982年.
- R.C. Christopher, *The Japanese Mind: The Goliath Explained*, 1983, 德山三郎譯, 『ジャパニーズ マインド』, 講談社, 1983年.
-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Basil Blackwell, 1955.
- Shunsaku Nishikawa, Osamu Saito, "Economic History of the Restoration Period Revisited," *UNU Conference on the Meiji Restoration*, Oct., 1983.
- 大川一司·H. Rosovsky 共著, 『日本の經濟成長—20世紀における趨勢加速』, 東洋經濟新報社, 1973年.
- 大前研一 著, 『日本經濟に斬り込む』, 文藝春秋, 1987年.
- 野村總合研究所 編, 『10年後の世界經濟と金融·資本市場—第 1 部 10年後の世界經濟と日本』, 1985年.

篠原三代平 著、『經濟大國の盛衰』，東洋經濟新報社，1982年。

池田誠，田尻利，山本恒人，西村成雄，奥村哲 共著、『中國工業化の歴史』，法律文化社，1982年。

総合研究所 編、『現代中國の經濟システム—日中經濟シンポジウム報告—』，筑摩書房，1986年。

馬洪 著(張風波 譯)，『中國經濟發展の新戰略』，友斐閣，1985年。

中嶋嶺雄，「いまなぜ儒教文化圏か—東アジアの活力とその文明的位相」，『中央公論』，1987年8月號。

日高普 著『日本經濟のトポス—文化史的考察—』，青土社，1987年。

渡邊利夫 著，『韓國—ヴェンチャー・キャピタリズム(Venture Capitalism)』，講談社，現代新書，1986年。

南亮進 著，『日本經濟の轉換點』，創文社，1965年。

收野昇 著，『研究開發の知識』，日本經濟新聞社，1976年。

大塚久雄 著，『社會科學における人間』，岩波新書，1977年。